

안 보이는 '영기' 보이는 식물로 표현한 원리 이해해야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 '제3영기씩 님쿨모양 영기문' ㉔



정답으로 굳어버린 일본 학자의 번역 우리는 이제 '당초문'이란 용어가 얼마나 허망한 명칭인가 알았을 것이고, 그 무의미한 용어가 '영기문(靈氣文)'이라는 이름을 새로이 부여받으면서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고차원의 상징을 띠는 것을 새로이 알았다. 여러 가지 당초문들 가운데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인동 당초문(忍冬唐草文)' 일 것이다. 특히 불교미술의 모든 장르에 매우 많다. 서양미술의 '팔메트'라는 것을 두고 '인동초(忍冬草)'라고 일본인들이 번역하였으므로 인동초(Honeysuckle)와 팔메트(Palmette)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여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혼란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보겠다. 겨우 '인동초'만이 모지게 추운 겨울에도 꽃꽂이 살아 있어서 끈질긴 생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무늬의 상징으로 대신하고 있다.

되었다. 그가 팔메트를 인동이라 번역한 이래 모든 그의 제자들이 이를 따랐고, 우리 학자들도 무조건 따른 데서 점점 혼란은 더욱 더 심해졌다. 그 큰 혼란은 이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살펴보자.

유럽에서는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하는 고대의 다양한 조형을 보고, 영국에서는 인동초라고 부르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팔메트라고 부르고 있으니 서양의 미술사학계는 그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게다가 이집트의 부채꼴 모양의 로제트라는 것 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식물을 함께 쓰니 혼란은 더욱 증폭한다. 거기다가 아칸서스까지 합세하므로 가히 서양의 인문학자 지성이 파경에 이른다. 서양의 미술사학자들여! 그리스 이래의 서양미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형을 풀어 내지 못하고 어떻게 서양미술사학이 성립할 수 있던 말인가!

동양 용어인 인동초를 영어로는 허니 서클(honeysuckle:인동넝쿨), 프랑스·독일에서는 팔메트(Palmette: 종려 잎 무늬:棕櫚葉文)라고 한다. 그런데 이 팔메트를 인동이라고 잘못 번역한 사람이 일본 학자 이토츠타(伊東 忠太: 1867~1954)다. 그는 메이지시대와 쇼와시대를 걸쳐 왕성하게 활동한, 일본 건축가이자 건축사(建築史家)이다. 현대 일본 건축의 창시자로 1902년에 처음으로 중국 불교미술의 보고인 운강석굴(雲岡石窟)을 발견했다. 그는 1902년에 건축학 연구를 위해 3년간 중국, 인도, 터키로 유학했으며, 1905년에는 유럽과 미국을 경유하여 귀국,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무엇이든지 확산하는 조형'을 여러 가지 식물이름으로 부르므로 상징을 찾아낼 수 없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영기의 추상적 표현을 현실에서 보는 식물들인 인동-팔메트-로제트-아칸서스 등으로 부르니 '확산하는 조형'이라는 영기문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이 뻔하다. 서양의 옛 예술가들이 꽃잎처럼 만든 것은, 영기문을 끝없이 확산시켜 우주에 충만한 영기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지, 현실에서 보는 인동도 아니고 님쿨도 아니었음을 조형들을 채색분석하여 증명할 것이다.

우리가 인동초 혹은 팔메트라고 부르는 '확산하는 부채꼴 모양'의 조형은 서양이

창조한 최소 단위의 영기문이다. 그러므로 '확산하는 부채꼴 모양의 영기문' 혹은 단지 '부채꼴 모양 영기문'이라고 용어를 임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영기문의 중요한 속성들 가운데 돌이 바로 '사방으로 확산하는 것'과 '횡으로 뻗어가는 것'이다. 그 최소단위가 이미 확산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최소단위가 주어진 공간에 맞추어 사방으로 확산하거나 한 줄로 연이어 횡으로 무한히 전개한다. 즉 그 두 속성으로 이루어진 영기문이지 현실의 식물이 아니다.

그리스와 바빌로니아의 영기문

그러면 우선 인동초가 무엇인지 식물도감에서 찾아보자.(그림①) 자연의 인동초를 보면 앞으로 살펴 볼 인동당초의 조형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교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말인가! 그러면 그리스의 인동당초문이라는 것을 채색분석해 보면서 그 전개과정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그림②-1)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채색분석한 도면에서 바로 할 것이다. 그리스의 무늬는 한 편에서 시작하여 한 방향으로 물 흐르듯 전개하지 못하고 같은 무늬가 반복하여 병렬(並列)하여 있다. 그러나 이 영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이어져 있어서 절묘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의 인동당초문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인동과 이집트의 연꽃의 결합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채색분석해 본 것처럼 이 무늬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식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명생성의 영기문으로 제1, 제2, 제3영기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이 무늬를 단순화시켜보면서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그림②-2)

나는 수년 전에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서 바빌로니아의 궁전 벽(발굴품에 근거하



그림 ①



그림 ③-1



그림 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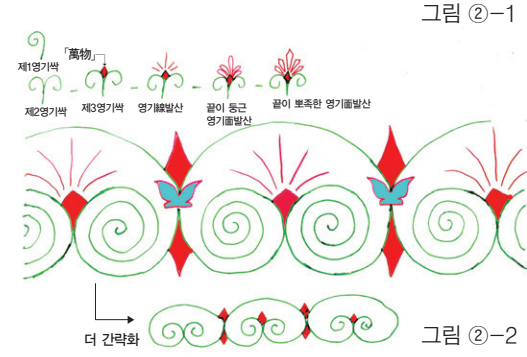


그림 ②-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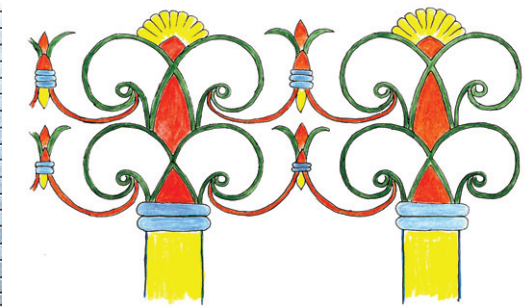


그림 ③-2

여 복원한 것에 표현된 영기문을 본 적이 있다. 벽돌로 쌓여진 성벽 면에 표현된 영기문을 보면, 그리스의 영기문의 연원이 바빌로니아의 칼데아 왕조의 2대 왕인 '네브카드네자르'가 기원 전 580년경에 지은 궁전의 채유(彩釉)벽돌 벽의 도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③-1) 그 영기문을 채색 분석 해 보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도면에 둔다.(도 ③-2) 즉 바빌로니아의 기둥 위에 있는 주두(柱頭)의 표현이 놀랍다. 주두는 우리나라 건축의 공포(拱包)에 해당하는데, 바로 '추상적인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

이 아닌가! 나에게서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만물이 생성하는 영기문의 원형을 바빌로니아에서 만나다니! 기둥이 우주목이며 동시에 생명수(生命樹)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일체의 인동당초라고 하는 조형의 근원은 기둥 위의 주두(柱頭)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알렉산대왕이 서아시아와 인도 북부를 정복하였을 때, 그리스미술이 동쪽으로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더 오랜 미술이 그리스로도 전파되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동당초문이라는 추상적인 바빌로니아의 예와 구성적인 그

①중양의 무늬를 보면 여러 번 도르르 말린 녹색의 제(葉)영기씩이 마주보며 그 갈래 사이에서 빨간 색의 만물이 갈래 사이에서 무엇이든지 탄생하므로 단지 만물이 아니라 부러려 한(한)이 탄생한다. ②노란 색의 형태는 잎이 아니고 영기화생한 만물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구성화한 것이다. ③그 옆으로 같은 단위의 무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래로 향한 갈래 사이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제3영기씩을 이룬다. ④기둥 위의 노란 색의 벌어진 씨방 같은 형태에서 다시 두 갈래의 영기문이 펼쳐져 뻗어나가고, ⑤그 갈래에서 다른 형태의 녹색 세 가지로 이루어진 만물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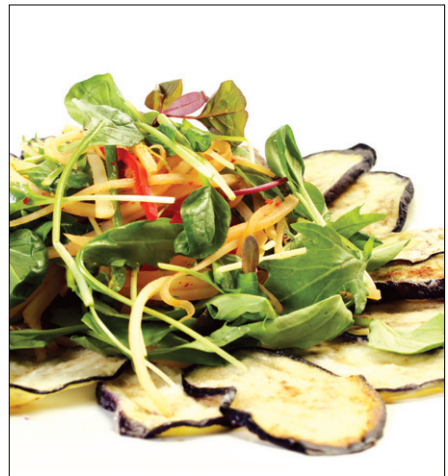
① 기둥 위의 매듭 같은 부분에서 제2영기씩 갈래에서 만물이 탄생하고, ② 다시 그 삼각형 모양에서 긴 둥근 영기문이 펼쳐져 처음의 제1영기씩으로 흡수된다. ③ 그런 제3영기씩이 반복한 다음, ④ 맨 위의 제3영기씩의 만물에서 노란색 영기문이 발산한다. 잎이 아니다. ⑤ 그 두 기둥 사이에 같은 성격을 띤 작은 제3영기씩 영기문에서 서로를 연결하여 역시 병렬식 무늬이다.

리스의 예를 들었다. 특히 그리스는 서구문화의 근원이다. 그 근원지의 무늬가 영동하게 현실에서 보는 인동과 수련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으로써 그 이후에 다양하게 변화하며 전개한 모든 인동당초문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고, 그 무지(無知)는 그대로 일본을 통해 동양 전체로 전해져 오는데 이르고 있다. 인동당초문은 영기문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형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제3영기씩으로 이루어진 님쿨모양 영기문' 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를 만들 수는 없다.

일향 한국미술 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가지편채와 가지김치



가지편채

△재료(4인 기준)

○ 가지 2개, 당귀잎 15g, 치커리 10g, 참나물 15g, 어린잎 50g, 황금팽이버섯 50g, 노란파프리카 1/4개, 붉은 파프리카 1/4개, 소금, 참쌀가루 약간씩
○ 소스 - 간장 1큰술, 청장 1작은술, 감식초 2큰술, 매실청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통깨 2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가지는 필러로 얇게 저민 후 소금으로 밑간한 후 수분을 제거한 다음 녹말가루를 얇게 입혀 구워낸다.
② 황금팽이버섯은 밑동을 잘라낸다.

③ 파프리카는 채썰고 샐러드 야채는 찬물에 헹구어 아삭하게 준비한다.

④ 분량의 재료를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⑤ 접시에 구운 가지를 돌려담고 샐러드 야채를 소스에 버무려 중앙에 소복하게 담아낸다.

가지김치

△재료(4인 기준)

○ 가지 4개
○ 김치소 - 청고추 5개,
○ 김치 양념 - 홍고추 6개, 국간장 3큰술, 소금 1/2작은술, 통깨 1큰술, 생강 1작은술, 참쌀풀 3큰술

여름 대표 채소 '가지'는 암예방에 탁월



△만드는 법

① 가지는 5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고 김으로 찜통

에서 2-3분 정도 찜서 식힌다.

② 청고추는 굵게 채썬다.

③ 김치양념은 분량대로 잘 섞은 후 찜통 찜고추를 넣어 버무린다.

④ 찜 가지에 소를 채운다.

식물활성 영양소 풍부한 가지의 효능

이른 무더위로 인해 자칫 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즘, 여름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가지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지는 청열, 장 기능 개선, 염증치료,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식품으로 특히 가지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알칼로이드, 페놀화합물 등 암을 예방하는 식물 활성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러나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리할 때도 굵거나 튀길 경우 바로 튀기게 되면 가지에 가장

많이 함유된 비타민 B의 손실이 커지므로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것이 좋다.

가지를 얇게 저며 소금을 살짝 뿌려 수분을 뺀 다음 참쌀가루를 묻혀 굵게 되면 참쌀이 가지의 찬 성질을 보완할 수 있어 좋다. 구운 가지에 향긋한 채소를 곁들여 소스에 버무려 먹음으로써 입맛을 돋울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한 또다른 조리법으로는 구운 가지에 여러 가지 생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 겨자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법도 있다.

가지김치는 생으로 담는 것보다 살짝 찜서 담게 되면 가지 특유의 아린 맛을 없애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데, 가지김치는 오래 두고 먹기보다 만든 후 바로 먹는 것이 더욱 맛있다.



김정은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밥당(10명)] 50,000,000원